

“개성 영통사 인근 3사 성지순례 코스 만들겠다”

천태종 총무원장 도정 스님 신년 기자회견

대한불교천태종은 북한의 개성 영통사와 인근 사찰인 관음사, 안화사를 잇는 3사 순례 코스를 만들 예정이다.



이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다.

도정 스님은 이에 대해 “총무원 교무부가 주관해 직접 전국 사찰에 법사를 파견해 일요일에 법회를 여는 방안을 도입하기로 했다”며 “일요일 법회가 정착되면 가족단위에서 연명별·계층별 포교로 점차 심화·확대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함께 천태종은 지난해에 중단됐던 창후 후 처음으로 봉행한 신도수계산림대법회를 올해도 열 계획이며, 수계자를 중심으로 한 수행 교육인 천태관음참의법회 활성화, 도심지역 사찰 중심의 열린 문화강좌 등을 통해 신도 교육에 힘을 쏟을 방침이다.

도정 스님은 또한 “총무원장 취임 후부터 중단 DB구축에 힘써왔다”며 “올해에는 천태종 전국 말사 150여 곳 현황을 정리한 <천태사찰총람>을 발간하겠다고 발표했다.

올 10월 일심국제선원 완공 전국 사찰에 일요일법회 개설 천태사찰총람 등 DB구축도

도정 스님은 이어 올해의 대작불사로 지난해 4월 단양에 기공을 한 일심국제선원을 꼽았다.

스님은 “올 10월 완공을 앞두고 있는 일심국제선원은 완공되면 종교와 종단, 지역과 계층, 국가와 인종을 초월해 누구나 찾아와서 마음을 다스리는 수행과 전통문화의 공간이 될 것”이라며 “이곳을 찾는 사람들이 활력을 되찾고, 삶의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도록 복합수행문화공간으로 만들어 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올 10월 완공을 앞두고 현재 불사중인 일심국제선원은 총 7,825㎡(2,370평)에 국제선원 1동(33.54평), 문화체험실 2동, 천왕문, 공양실 및 강당 등 5개 동을 건립중이다. 소요예산은 총 100억 원이다.

또한 천태종은 올해부터 전국 사찰에서 일요일법회를 봉행한다. 그동안 천태종 사찰은 요일과 무관하게 사찰별로 날짜를 정해 정기법회를 실시해왔다. 이에 평일에 법회가 열릴 경우, 직장인과 학생 등은 법회 참석

올 10월 일심국제선원 완공 전국 사찰에 일요일법회 개설 천태사찰총람 등 DB구축도

이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다.

도정 스님은 “총무원장 취임 후부터 중단 DB구축에 힘써왔다”며 “올해에는 천태종 전국 말사 150여 곳 현황을 정리한 <천태사찰총람>을 발간하겠다고 발표했다.

도정 스님은 또한 “총무원장 취임 후부터 중단 DB구축에 힘써왔다”며 “올해에는 천태종 전국 말사 150여 곳 현황을 정리한 <천태사찰총람>을 발간하겠다고 발표했다.

“승가복지 전면시행·교구 중심제 도입 추진”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 신년 기자회견... 3대 중점 과제 발표

“종단 중점과제를 수행해 우리 종단이 ‘자비의 조계종’, ‘화쟁의 조계종’, ‘이웃의 조계종’이 되길 거듭 발원합니다. 나누며 봉사하는 삶을 우리 종단 사부대중의 소임으로 삼겠습니다. 진실과 화해의 시대를 국민과 사부대중 여러분과 함께 열어가겠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이 향후 종단 과제의 대명제로 ‘화쟁 정신을 통한 나눔과 자비 구현, 종단 혁신’을 천명했다.

자승 스님은 1월 1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회의장에서 불기 2558년 신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자비와 화쟁으로 이웃과 함께 하는”라는 슬로건을 내건 자승 스님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제34대 집행부 3대 중점과제로 △사회와 이웃을 향한 나눔과 봉사의 불교 △지혜와 자비를 구현하는 사부대중 공동체 △불교 대중화, 생활화, 사회화를 추진해 나간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자승 스님은 “정정 승가를 위해 승가 청규를 공식적으로 제정하고 실천해 나갈 것”이라며 “부족한 부분은 승려법을 개정해 법계 행위를 엄격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출가자 소양교육 강화를 위한 법계별 연수교육 제도 도입 및 승가 전문인력 육성, 한국불교 세계화를 위한 인재 양성 등 조계종 수행자의 정체성을 확립에도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승가복지 등 나눔 영역 역량 강화 사회복지 등 나눔 영역 역량 강화

“사회와 이웃을 향한 나눔과 봉사의 불교”에 대해 자승 스님은 1사찰 1사회시설 운영을 비롯해 △남불교 교류 확대 △사비나눔 활동 분사 확대 △사찰과 숲 가꾸기 △불사자문위원회 사회사업 등을 제시했다.

자승 스님은 “교구본사 중심으로 사회복지

역량을 강화하고 모교 전문가 등을 양성해 나눔 문화를 확산할 것이며 자원봉사와 복지역량 결집에 노력할 것”이라며 “국내외 재난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긴급재난구호봉사단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사회복지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참여자들이 평화의 삶, 불교의 연기사상을 이해할 수 있도록 체험프로그램 운영을 예고했으며, 간화선을 비롯해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살아있는 대중안거 수행문화를 발전시켜 불교 한류를 이끌어 내겠다는 포부도 내놨다.

법계행 엄격 관리...수행자 정체성 확립

“지혜와 자비를 구현하는 사부대중 공동체”를 통해서 정정 승가 위상을 바로 세우고 새로운 전법 토대를 만들 것을 천명했다. 결사운동도 ‘부다로 살자’ 운동으로 전환해 대중화, 생활화, 사회화를 추진해 나간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자승 스님은 “정정 승가를 위해 승가 청규를 공식적으로 제정하고 실천해 나갈 것”이라며 “부족한 부분은 승려법을 개정해 법계 행위를 엄격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출가자 소양교육 강화를 위한 법계별 연수교육 제도 도입 및 승가 전문인력 육성, 한국불교 세계화를 위한 인재 양성 등 조계종 수행자의 정체성을 확립에도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젊은 불교 지향... 예산 10% 청소년 포교에

진각종 총무원장 회정 정사

진각국제체험관 올해 중 완공 스리랑카에 회당법인 설립 예정



“젊음불교, 수행을 즐겁게 하는 종단을 만드는 것이 올해의 중점 목표입니다.”

진각종 총무원장 회정 정사(사진)는 1월 15일 월곡동 진각문화전승원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불교가 우리 사회의 노령화 현상보다 더 빠르게 노쇠해가고 있어 걱정”이라며 “새해에는 젊은 불교 구현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회정 정사는 “지난해 연 청소년결집대회를 통해 젊은 불교의 가능성을 보았기 때문에 올해에도 청소년 및 청년 불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개발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회정 정사는 이어 “우리 진각종의 수행이 일반인이 볼 때 너무 어렵게 받아들여지는 것 같다”며 “올해는 수행 그 자체를 즐기며, 즉 즐겁고 신나고 재미있는 수행 프로그램을 진각종이 앞장서 개발하겠다”고 피력했다. 또한 회정 정사는 “종단예산의 10%를 청소년 포교에 배정 한 것도 젊은 불교를 지향하려는 집행부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진각문화전승원의 불사 계획도 밝혔다. 전승원 1층 3면을 ‘가칭 진각역사공간’으로 구성하고, 시대별 심인당 재현관, 종조일대기와 종단 역사 홍보관을 건립할 방침이다. 아울러 진각문화국제체험관도 진각문화전승원 활용 강화를 위해 올 연말까지 완공할 예정이다.

스리랑카 국제학교에 대한 사업 계획도 털어놓았다. 회정 정사는 “스리랑카에 올 3~4월중 회당학교 법인이 승인될 것”이라며 “법인 승인이 되면 종단에서 직접 책임자를 파견해 종단의 목적 사업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또한 회정 정사는 통일 기금도 매년 1억원씩 적립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주일 기자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1월 14일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화쟁과 자비, 이웃의 조계종으로 거듭날 것을 천명했다.

자비와 화쟁으로 과 함께 하겠습니다

교구중심·승가복지 등 현안 해결 의지 불교중흥을 위한 지속적인 종단 혁신’을 통해서 승가복지·교구중심제·신도시 포교 등 당면한 종단적 불사를 여법하게 추진한다는 포부를 밝혔다.

올해를 ‘조계종 승가복지의 원년’이라고 선언한 자승 스님은 “오는 3월 승가복지법 개정을 기점으로 승가복지를 전면 시행한다”면서 “의료비 지원을 전면 확대하고 수행 연금에 현황조사를 통해 중앙과 교구의 역할을 설계해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구 중심제에 대해서는 “‘중앙·교구발전위원회’를 구성해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하겠다”면서 “우선적으로 교구인사제도 개선, 말사 주지인사 교구 위임을 논의하고 이종 말사 주지인사의 교구 위임은 올 상반기 중 결론을 내겠다”고 의지를 내비쳤다.

이어 “직할교구 강화를 위해 경북, 경남, 인천 지역으로 직할 교구를 세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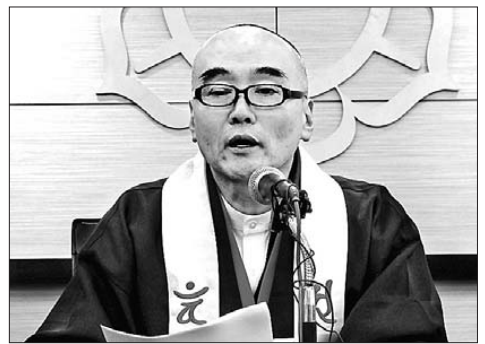
33대 집행부의 성과인 토지처분금을 목적사업에 활용해 각 신도시에 종단 사찰을 건립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특히 자승 스님은 행정수도로 변모하고 있는 세종 신도시에 사찰을 건립해 총무원 본소를 설치한다는 방안도 공개적으로 밝혔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은 교육원장 현승 스님, 포교원장 지원 스님, 자성과학신결사추진본부장 도법 스님 등이 함께 배석했다. 신종일 기자

“신도복지불사에 종단 역량 집중할 것”

총지종 총무원장 범등 정사

성남·부산에 교도복지시설 건립 3월 완공 증원사, 수행도량 운영



총지종의 2014년 새해 예산은 총 86억 4천만 원이다. 이 예산은 △전당 건설 △복지사업 △교화 및 교육, 문화 △어린이 청소년 포교 △중증환 힐링센터 건립 등에 쓰여질 예정이다.

총리원장 범등 정사(사진)는 1월 16일 서울 역삼동 총리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지종의 확정된 올해 총 예산을 발표하고 예산 가운데 절반가량인 40억원을 신도복지 불사에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범등 정사는 이를 위해 교도복지 시설을 성남과 부산에 각각 마련할 예정이다. 범등 정사는 “성남에는 30여 명, 부산 50여 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건립될 것이다. 고령의 신도를 우선 대상으로 수용할 것이며 이들에게 숙식과 신명생활을 보장해 편안한 노후생활을 제공한다는게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범등 정사는 3월 중 완공될 과산 증원사에는 종조전과 종조사리탑 건립불사를 추진중이며, 안거

제도를 도입해 수행전문도량으로 키워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총지종은 역삼동 총지불교문화센터내에 ‘종합힐링센터’를 올해 개설한다. 범등 정사는 “1백여명 정도를 모집해 주 1~2회 정도 명상수행 교육을 실시할 것”이라며 “법사진도 세계적으로 유명한 명상센터인 미얀마의 마하시 센터 고승들을 초청해 지역주민과 직장인 대상의 다양한 힐링 명상프로그램들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총지종은 수익사업을 확대할 뜻도 내비쳤다. 범등 정사는 “수익 창출을 통해 신도들의 시주금에 의존하지 않고 교화복지에 더욱더 집중하겠다”고 설명했다.

김주일 기자 kimj4217@hyunbul.com

www.dongsanbud.net

2014년 동산불교대학 44기 신입생 모집 [2년과정]

모집학과

- 불교학과 [2월 8일(토) 오후 5시 개강]
- ▶ 토요일 [매주 토요일 오후 6시] : 50명 ▶ 목요일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 50명 ▶ 통신반 : 30명

1년차 과목	① 불교개론 ② 불교문화와 포교(불교미술 다도) ③ 선불교 ④ 근원불교 ⑤ 반야사상(반야심경 금강경) ⑥ 유식불교와 명상
교수진	법산 스님(학장), 최홍식 교수, 이명환 교수, 윤영수 교수, 법인 스님, 박희준 교수, 김호기 교수, 활안 스님, 최봉수 교수, 김형준 교수, 모주 스님

▶ 불교도학(2년) 3월 4일(화) 오후 2시
▶ 교과목 한국 차문화, 유럽차문화, 일본차문화, 중국차문화(타이-테이블세팅, 차의미학, 제다심명)
▶ 모집인원 20명

▶ 불교미술학(3년) 3월 6일(목) 오전 10시 30분
▶ 교과목 사물기분, 불화기분, 단청기분, 신종호 보살초, 여래초, 영산화상, 정도변상도, 수월관음도, 개발작품지도
▶ 모집인원 20명

▶ 선·명상학(2년) 3월 6일(목) 오후 7시
▶ 교과목 1학기: 선불교, 관화선 | 2학기: 명상선, 정토선 | 3학기: 초·중·고·대학생 명상 | 4학기: 태백명상, 립명
▶ 모집인원 30명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입학금 20만원
■ 원서교부 및 접수 : 2014년 1월 2일부터 문의 : (02) 732-1206~8
▶ 상기 과정을 졸업한 후 한국불교교육단체 연합회포교사 고사를 거쳐 포교사 자격을 취득함.
▶ 군법당 관련종사자(군종병, 부사관, 장교)는 전액면제 교육함.

동산불교대학·대학원
사무처 : 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45-11(우송동 46-20, 동산불교대학)
TEL 02)732-1206~8, FAX 02)732-1207 www.dongsanbud.net

《인도 나란타대학터》

출강 및 통신 2014학년도 제23기 법사학인 신입생 모집

법사교육 신입생 모집

법사 되는 방법이 여기에 있습니다!

모집과정	· 법사과정 · 불학연구원과정 · 대법사과정 · 불교석학과정
모집학반	· 출강반 · 통신반
입학자격	· 불심이 돈독한 분 · 불교를 체계적으로 배우고자 하는 분 · 교육수로 후법사로서 포교활동을 희망하는 분 · 포교원 및 사찰을 개원하려는 분 · 불교지도자로서 사회에 봉사하려는 분
교육기간	· 법 사 과 정 = 1년(교과목 및 불교의식) · 대 법 사 과 정 = 2년(교과목 및 법음·법패) · 불학연구원과정 = 5년(교과목 및 참구수행) · 불 교 석 학 과 정 = 2년(교과목 및 참구수행)
교육장소	· 서울 본 대학 · 부산교육원 · 제주교육원

- ◆ 23년의 법사양성 연륜은 대학의 위상과 교육의 신뢰에 자부와 긍지를 갖습니다.
- ◆ 법사자격을 갖추고 불교 지도자로서의 신명생활에 기쁨과 행복을 함께하여 보십시오.

- ① 공익법인 한국불교법사총연합회에서 법사자격 범위증을 발급 받습니다.
- ② 불교학전공 저명한 교수진으로 강의 진행됩니다.
- ③ 불교를 쉽게 이해 정립되도록 지도교육 합니다.
- ④ 특성화 교육으로 실시됩니다.
- ⑤ 법사품수 후 사찰·포교원 등서 행정상 보호반도도 지원합니다.

◆ 원서 교부 및 접수 : 2014년 2월 21일까지(현재 접수중)
◆ 원서 교부 및 접수처 : 본 대학 교무처(방문·우편·팩스·메일) 부산교육원 ☎ 051-466-1959 · 제주교육원 ☎ 064-751-1959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모집요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깨달음의 법(法) · 전법하는 사(師)

한국불교법사대학·대학원
서울특별시 종로구 우정국로 45-3 (견지동, 한신빌딩 3층)
http://pubsa.buddhism.org FAX : 02)737-5305

☎ 02)733-1959 720-1836